

‘코로나 수능’ 결시율 역대 최고 전망...대입전형 최대 변수

감염 우려에 응시 기피 분위기
100명 중 15~20명 달할 듯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전형
등급 컷 상승...합격선 변수 작용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결시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코로나19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필요한 수시 전형이나, 정시 합격선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49만 3433명이다. 54만 8734명이던 2020학년에 비해 5만 5301명(10.1%) 감소했다. 이는 지난 1994학년도 수능이 도입된 이후 최소치로 40만 명대에 진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능 결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2·3등급 상위권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능 시험장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수시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들이 수능 응시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입시 커뮤니티에는 이처럼 수능 응시를 고민하는 수험생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학생부교과전형이나 논술전형 등에 지원한 이들이다. 굳이 수능 점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수능을 쳤다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수능 직후 실시되는 면접과 논술 등 대학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지난해 수능 결시율이 11.7%로 이미 수능 도입 이래 최고 결시율을 기록했음에도, 올해 지난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상황을 봤을 때 이번 수능에서도 3~5%까지 결시율이 늘어날 수 있다”며 “전체 응시자 수가 줄



수능 문답지 도착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일 광주시교육청에 도착한 수능 문답지를 교육청 직원들이 고사관리실로 옮기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어떻게 되면 1, 2 등급 인원도 줄어들어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하는 학생들은 자기 실력과 무관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위권 학생은 물론이고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되지 않는 수시 전형에 ‘올인’한 수험생들이 수능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정시,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 간 등급 경쟁 격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미노’처럼 각 등급 컷이 상승하면서 한 두 문제에 등급이 갈릴 가능성도 있다.

수시전형 논술시험을 준비 중인 고3 수험생은 “중하위권이 대거 결시하면 등급 컷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등급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르게

하는 것은 물론 수능 이후 대학별 고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술고사 등은 수능 다음날인 4일 시작돼 주말인 5·6일부터 3주간 주말마다 집중적으로 실시되지만, 대학 자체의 관리가 허술할 것을 우려해 비대면 방식 외에는 확진자들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입시 전문가는 “교육 당국이 대입 응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 고사장을 설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자가 격리자가 학내에서도 실기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움직임이지만, 막상 응시자가 많은 논술 시험 관련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을 꼬집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 앞당겨 가림막 등 낯선 환경 적응해야

수능 D-1 수험생 최종 점검 사항

아침 6시 30분부터 입실 허용

신분증·수험표·마스크 챙기고

휴대폰 등 반입 금지 물품 확인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치러지는 이번 수능은 예년과 달라진 상황이 많아 유의해야 하는 사항도 늘었다. 예비소집에 참여 시험장 분위기를 익히고 당일 행동·응시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다.

기존에는 수능 전날인 예비소집일에 고사장 방문이 가능했다. 시험장 분위기, 자기 자리, 화장실 위치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다. 올해는 시험장 방역을 위해 건물 입장이 철저하게 금지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 당일 일찍 고사장으로 이동할 것을 조언한다. 책상 가림막 등 낯선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어사다. 시험장 분위기를 사전에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도 당일 당황하지 않는 방법이다.

고사장에서 쉬는 시간에 가볍게 볼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것도 좋다. 쉬는 시간이 20분이지만 화장실 이용 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5분 남짓이다.

자투리 시간에는 책보다 요약노트를 가져가 빠르게 훑어보는 것이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

■ 수능일(12월3일) 준비물

- 08:00까지 시험실 입실 (오전 6시30분부터 출입 허용)
- 수험표·주민등록증 등 본인 입증 신분증 지참
- 모든 수험생 시험장 내 마스크 착용
- 반입 금지물품
-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라디오,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기능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에도 요약 노트가 상대적으로 효과가 크다.

신분증과 수험표 등 수능 당일 꼭 가져가야 하는 필수 지참물을 미리 챙겨야 한다. 수능 당일에 급하게 준비물을 챙기다 빠빠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심리적 안정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개인용 샤프펜슬, 전자시계 등 수능 고사장 반입 금지 물품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 등은 고사장에서 나눠 주지만 여분을 챙겨두는 것도 좋다. 마스크도 미리 여러 장을 준비해야 한다.

수능 전날에는 오후 11시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수능 당일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충분한 수면이 필수다. 숙면을 통한 컨디션 유지가 수능 당일 실력 발휘를 위한 토대가 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MRI로 치매 조기 예측 가능...내년 시범서비스”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 빅데이터 이용 뇌 노화과정 표준화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이 MRI검사만으로 치매를 조기에 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연구단은 빠르면 내년부터 광주지역에서 MRI 뇌사진을 이용한 치매 고위험군 예측 시범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치매 예측 기술 개발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일 조선대에 따르면 앞서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은 대규모 치매코호트 추적연구를 통해 서양인에 비해 한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

한국인은 OECD국가 평균보다 치매 발병률이 최소 1.3배 이상 높고 백인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나이가 평균적으로 2년 이상 이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전적 원인을 밝혔다.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은 지난 8년간 1만 40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고위험군 선별 검사를 통해 8000명의 치매 고위험군을 선별해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MRI검사, PET검사 등 무료 치매 정밀검진을 시행해 아시아 최대의 지역 기반 치매코호트를 구축해 오고 있다.

연구단은 건강한 노인 1000명 이상의 초정밀 MRI뇌영상상을 이용하여 60세 이상 한국인의 노화 과정을 표준화하였다.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뇌를 조기에 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은 치매 치료에 있어 의미가 크다. 노인성 치매는 뇌의 손상과 위축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증세가 나타나기에 발병 이후에는 치료가 사실상 어려워 발병 전 예측을 통한 예방 및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치매를 조기에 예측하기 위해 혈액검사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 중에 있지만 치매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인 뇌손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검사 등 뇌영상 검사가 필수적이다.

이번 연구는 뇌신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프론티어 인 에이징 뉴로사이언스’에도 게재됐다.

이건호 단장은 “이번 연구성과를 토대로 MRI검사만으로 경도인지장애 단계뿐만 아니라 무증상 단계의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됐다”며 “이르면 국내 최초로 내년 초에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고위험군 예측 인공지능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정확도가 입증되면 임상시험을 통한 신 의료기술 인증절차를 거쳐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코호트 격리 해제...정상 운영

응급실은 4일부터

‘코로나19’ 원내 감염으로 코호트 격리됐던 전남대병원이 1일 격리해제와 함께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다만 지난 달 28일부터 제한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은 오는 4일부터 모든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상 진료가 가능하다.

이번 격리 해제는 그간 원내 감염확산 가능성이 낮아지고, 자가격리 됐던 의료진이 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진료현장에 대부분 복귀함에 따라 광주시를 비롯한 방역당국과의 협의 끝에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1일부터 외래 진료, 수술실 운영, 입원 등 모든 진료 시스템을 정상 가동한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외래진료는 현행대로 비대면 진료도 병행해 이뤄지며, 외래를 통한 입

원환자의 경우 환자와 보호자는 48시간 이내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다.

이로써 지난 달 17일부터 사상 초유의 코호트 격리를 겪게 된 전남대병원은 그간 개인방역의 미흡함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상 회복하고자 하는 전 직원의 노력에 힘입어 격리지역이라는 불상사 없이 2주 만에 격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달 20일 신임 병원장으로 취임한 날부터 공식 외부일정 없이 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 매진해 온 안영근 병원장은 “코호트 격리 기간 동안 지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제는 모든 진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예전처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 ~ 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화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인 문 사 회	신 학 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유아교육과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6
총 계			29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30
		성경연구학과(Th.M.)	10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6
		상담심리치료학과(D.C.S.)	7
		코칭심리학과(D.Psy.)	7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5
		휴먼서비스교육학과(D.Ed.)	12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14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재활심리치료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15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8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전영일정

일반전형
· 원서접수: 2020. 11. 30(월) ~ 12. 9(수)
· 전 형 일: 2020. 12. 11(금)/12(토)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

입학문의 ▶ 학 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